

“돈보다 환자 치료하는게 먼저죠”

한철 KS병원 일반외과 원장, 이라크 난민 담낭 결석 무료 수술

원인 모를 복통에 시달리다 내원...검사 결과 담낭 결석 “수술비 없어 약 처방만 해달라는 환자 외면할 수 없었다”

광주 광산구 KS병원(병원장 이영철)이 지난 4일 복통에 시달리던 난민 피리(여·48·이라크)씨에게 수술비를 받지 않고 수술을 진행,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

피리씨는 한국에 들어온 지 3년째로, 난민(G-1) 신분으로 수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어려운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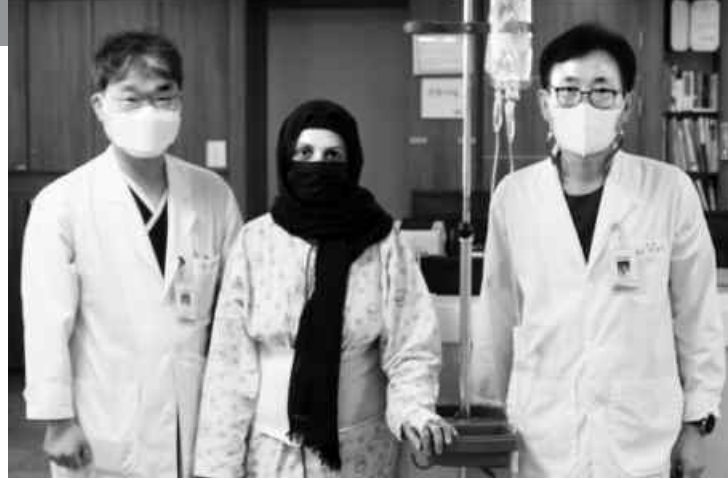
피리씨는 최근 원인을 알 수 없는 복통에 시달렸다. 고통을 참지 못한 그는 지난 2일 두 아들을 데리고 급히 KS병원을 찾았다.

KS병원 관계자는 “피리씨가 한국어를 전혀 할 줄 모르는 상황이라, 작은 아들이 손지 밭질을 섞어가며 상황을 설명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왔는데, 수술할 돈이 없다. 약만이라도 지어 줄 수 없느냐’고 물어왔다”고 당시 상황을 묘사했다.

진단 결과는 담낭 결석이었다. 결석을 제거하기 않는 한, 아무리 약을 먹더라도 지독한 고통이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진료를 담당한 한철(일반외과) 원장은 수술비를 받지 않고 담낭절제술을 진행하겠다고 결심했다.

4일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친 피리씨는 건강을 회복하고 9일 퇴원했다. KS병원은 수술비는 물론 진료비, 입원비도 받지 않았다.

한 원장은 “외국인이고 말도 안 통하는 사람이 낮은 병원에 찾아왔는데,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찾아왔을까 걱정됐다. 오히려 제 스스로 의술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순간이었다”고 전했다.



왼쪽부터 한철 KS병원 일반외과 원장, 피리씨, 이영철 KS병원장. <KS병원 제공>

이러 “무사히 수술을 마칠 수 있어 기쁘고, 나 또한 의술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돼 뿌듯했다. 피리씨의 빠른 회복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한국전력, 감사자문위원 10명에 위촉장 전달



한국전력은 지난 7일 나주 본사에서 ‘2021년 제 1차 감사자문위원회’를 열고 감사자문위원 10명에게 위촉장을 전했다. 9일 밝혔다.

감사자문위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 네 번째 추진된다. 올해는 감사, 법률, 회계, 경영, 기술 등 5개 분야의 외부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다.

한전은 올해부터 회의 개최 주기를 반기에서 분기 단위로 확대하고, 위원 수도 기존 5명에서 10명으로 늘렸다. 여성위원 3명도 위촉했다.

이날 회의는 위촉장 전달과 한전 및 감사

업무 소개, 주요 경영현안 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를 개선하려는 ESG경영 구현과 사회적 가치제고를 위한 감사방향 등에 대해 감사자문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최영호 상임감사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주요사업 및 정책에 대해 효과적인 위험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감사자문위원회를 통해 한전의 경영 리스크를 사전에 발굴하고 선제적 해법을 경영진에 제시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의견을 바란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전남여성 ‘BTS 제이홉 장학금 수여식’



전남여성은 지난 8일 교내 우주동인관에서 ‘방탄소년단(BTS) 제이홉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장학금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전남 여성 학생 10명(1학년 5명, 2학년 3명, 3학년 2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총 500만원이 지급됐다.

방탄소년단 제이홉(본명 정호석)은 지난 2019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에 통해 모교(국제고) 재단 학교법인 춘태학원에 장학금 1억원을 쾌척했다. 장학금은 5년 동안 지급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제이홉 장학금을 받은 전남여성 학생은 총 30명으로 누계 금액은 1500만원에 달한다.

1학년 손예원 양은 “방탄소년단 제이홉 장학금을 받게 돼 영광스럽다”며 “감사함을 잊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 취업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전남여성 최규명 교장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지원해 학생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게 보다 많은 학생이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

박석배 aT 상임감사 농번기 양파 수확 돕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박석배(사진) 상임감사와 감사실 직원들은 9일 신안 임자도 양파 수확 현장을 찾아 일손 돕기에 나섰다.

aT는 농번기를 맞은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돕기 위해 본사·사업소·지역본부를 통해 전자차원에서 지역 농가 일손을 보태고 있다.

이날 일손 돕기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지키며 진행됐다.

박 상임감사는 “농번기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솔이엔씨 박상욱 대표, 전남대 발전기금 전달



(주)한솔이엔씨 박상욱 대표가 전남대학교(총장 정성택)에 발전기금 8500만원을 전달했다. 전남대 해양학과 출신의 박상욱 대표이사는 최근 모교 정성택 총장을 예방해 발전기금을 전달한 뒤 한담했다. 박상욱 대표는 “회사는 크지 않지만, 환경영향평가와 어류 조사 등을 하는 해양환경전문기업으로서, 우리와 함께 연구에 나서고 있는 무인도서 연구센터가 활성화돼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남대 제공>

TV프로그램 1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KBS1	KBS2	MBC	KBC/SBS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부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15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3부	50 밥이 되어라(재)	35 아모르파티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속아도 꿈결(재) 40 지구촌 뉴스	45 불꽃반 신선놀음 스페셜	10 SBS 뉴스 30 열린TV 시청자 세상 30 고향이 보인다
[11]	00 한국인의 밥상(재) 50 한국의 인류유산(재) 55 UHD 습터	00 대박부동산(재)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10 인간극장 스페셜	00 12 MBC 뉴스 20 반짝이는 프리채널 50 뽀뽀뽀 친구친구 스페셜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네모세모(재)
[1]	00 생로병사의 비밀(재)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20 푸르기 식사교실(재)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30 팜팡 다이너 45 반짝반짝 달남이			00 뉴스브리핑
[3]	00 마법소년 디디 2 15 출동! 유우구조대 3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0 보토스 패밀리(재) 30 TV 유치원	20 이 맛에 산다	
[4]	00 사사건건	00 누가 누가 잘하나	00 기본 좋은 날(재)	00 박미선과 돈우리 돈해피(재) 55 닥터 365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재)	00 마카엔로니 15 몬스터 탐 30 농친 예능 따라잡기 50 통합뉴스룸 ET	00 5 MBC 뉴스 15 지도의 뒷면 -당신이 몰랐던 우리 동네 이야기	00 SBS 오뉴스 35 KBC 저녁뉴스 50 kbc특집 고향이 좋다(재)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10 오매! 전라도	50 닥터 365 55 전국 TOP 10 가요쇼(재)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한국인의 밥상	50 미스 몬테크리스토	05 생방송 연극복권 720+ 10 밥이 되어라 5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속아도 꿈결	30 UHD 환경스페셜		30 KBC 8 뉴스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	30 대박부동산 비하인드 킷	20 특집 MBC 이즈 백	00 맛남의 광장
[10]	00 기후변화 최전선을 가다 북극 탐사 1년의 기록 50 더 라이브	40 대화의 회열 3	30 다큐플러스 6월민주행동 30주년 특집다큐 민주주의 꽃이 피다	30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2
[11]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30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50 제18회 서울환경영화제 특선 아름다운 여행	55 접속! 무비월드 스페셜
[12]	10 시사 직격(재)	00 스튜디오 K 25 스포츠 하이라이트 50 통합뉴스룸 ET(재)		25 나이트라인 55 닥터 365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20 미스터리아
05:50 한국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45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06:1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글로벌 뉴스	18:00 생방송 방과 후 토크쇼
07:00 로이와 함께하는 소방안전 이야기	12:10 EBS 부모	19:05 포텐독
07:15 티시테시	13:00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19:35 자이언트 팽TV
07:30 뽀뽀뽀 뽀로로	14:10 명의	19:50 신계속의 맛터사이클 다이어리
07:45 최고다! 호기심딱지	15:05 지식채널e	20:40 세계테마기행 1~2부
08:00 땀땀 땀땀	15:15 클래스 e	<외면 마을 기행 -히말리아의 상크릴라, 부탄>
08:30 우당탕탕 은하안전단	15:35 EBS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21:30 한국기행 <놀면서 명하니 4부 꿈을 찾아서 여기에>
08:45 한글용사 아이야	15:50 가만히 10분 명TV	21:50 피란만장
09:00 시공	16:00 페파 피구	22:45 사운드 스토리 너의 소리가 보여
09:15 봉우야 말해줘2	16:15 한글용사 아이야(재)	23:35 클래스 e
09:30 몰랑	16:30 땀땀 땀땀(재)	
09:40 우리집 유치원	16:50 내 친구 문데이	
10:30 한국기행(재)	17:00 EBS 뉴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10일(음 5월 1일 己丑)

<p>36년생 본격적으로 나사기에는 아직 이르다. 48년생 상식에 근거한다면 해결할 수 있다. 60년생 천하가 다 알다시피 두 말하면 잔소리다. 72년생 재수불공을 올린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분명한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84년생 실수를 두려워하다가는 아무것도 못 하는 법이다. 96년생 간단하고 명료함이 유익하다. 행운의 숫자 : 25, 70</p>	<p>42년생 일체의 기준 가치관을 뒤흔드는 커다란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다. 54년생 일도양단할 수 있는 처신이 필요하다. 66년생 성실한 이행은 성취의 길목으로 이끌기에 손색이 없다. 78년생 욕심을 낸다면 도리어 화를 당하리라. 90년생 특별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할 때다. 02년생 근면 원인부터 살펴보는 것이 순서라고 볼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44, 93</p>
<p>37년생 백 마디의 말보다 한 건의 실행이 더 낫다. 49년생 과거에 만난 인연이 현재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되는 사세이다. 61년생 가급적 조용히 조처하는 것이 상책이다. 73년생 외형까지 신경 쓴다면 부가적 효과가 따른다. 85년생 핵심 사실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다루자. 97년생 참과 거짓을 헤아리기 힘들 것이라. 행운의 숫자 : 37, 58</p>	<p>43년생 불합리하다면 사전에 제거하고 바로 잡는 것이 마땅하고 본다. 55년생 뿌린 대로 거둘 것이니 부지런히 활동하라. 67년생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 할 때다. 79년생 규칙적이고 계속이어야만 효과를 보는 법이다. 91년생 협상 감각이 뒤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03년생 과욕만 하지 않는다면 고통은 없으리라. 행운의 숫자 : 20, 65</p>
<p>38년생 사뭇거늘 하는 법이니 지극히 당연한 결과를 얻게 되리라. 50년생 원칙만을 고수하지 말고 융통성을 발휘하라. 62년생 가장 근원적인 것을 살펴본다면 해결책은 쉽게 나온다. 74년생 핵심 사실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다. 86년생 탄력이 붙으면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98년생 발전의 모티브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74, 94</p>	<p>32년생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은 뒤돌아 볼 필요 없으니 앞만 보고 진행하라. 44년생 의무적인 사항은 반드시 이행해야만 한다. 56년생 시원스럽게 진행되지만 장기적이지는 않다. 68년생 측면에 관심 가질 필요 없이 자신의 길만 묵묵히 걸어가면 그만이다. 80년생 급하게 뛰어들어야 할 일이 많다. 92년생 천마리가 지배적인 작용을 하리라. 행운의 숫자 : 38, 55</p>
<p>39년생 기발한 요령 보다는 꾸준한 정진이 더 나은 것이다. 51년생 원래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63년생 참으로 절기면서도 미묘한 인연 앞에서 당황 하리라. 75년생 절대로 소홀히 여겨서는 아니 되겠다. 87년생 낙수물도 반 복 되면 댓돌을 뚫는 법이다. 99년생 무의미한 과정은 미련 없이 삭제하는 것이 유용하다. 행운의 숫자 : 26, 91</p>	<p>33년생 호랑이에게 물러가더라도 정신만 차리고 있다면 화를 면할 수 있을 것이다. 45년생 객관적인 사실만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 합당하다. 57년생 진로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생길 것이다. 69년생 과거의 잘못을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다. 81년생 계획대로라면 양호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93년생 턱이 높은 이의 배려를 받을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34, 51</p>
<p>40년생 알고 있다하더라도 현연에 대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 52년생 아주 가까이 있으니 주변을 잘 살펴보도록 하자. 64년생 새로운 희망을 안고 오는 이가 있을 것이다. 76년생 마음을 비우고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88년생 경험을 살린다면 무난하게 타개할 수 있다. 00년생 태평스런 행태가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4, 95</p>	<p>34년생 행방을 좌우할 것이니 현명한 취사선택이 절실한 때이다. 46년생 화는 많고 길조는 적으니 변동을 꾀하지 말라. 58년생 모두가 돈과 결부 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70년생 성심을 다 한다면 진행되는 성취도가 무난할 것이다. 82년생 막연하다면 절제할 수도 있어야겠다. 94년생 행동의 폭이 매우 넓다. 행운의 숫자 : 07, 96</p>
<p>41년생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것이니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53년생 일반적인 방법으로 계속 되었을 때 효과가 커진다. 65년생 넘치려는 것은 반드시 통제해야만 한다. 77년생 유동적이니만큼 변수의 폭까지 감안 해야겠다. 89년생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재고해야겠다. 01년생 함자가 도약해야 할 때다. 행운의 숫자 : 29, 74</p>	<p>35년생 형세에 맞게 적당히 조절해야 할 때가 되었다. 47년생 기다려 왔던 소식을 접하게 될 것이다. 59년생 뒤돌아갈 수 없는 갈림길에서 있다. 71년생 전혀 의식할 필요 없으니 소신껏 행해도 된다. 83년생 실제로 접하면서 사실상의 가닥이 잡힐 것이다. 95년생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의 돌발 상황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10, 75</p>